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의 보건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성(性)의 이해

-포르노와 성-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들어가면서

어떤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 사회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여성을 등장시키는 매춘의 현장과 포르노 물을 보곤 하는데 한결같이 남성들이 그곳의 주요한 고객이므로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때마다 본인이 느끼는 것은 왜 여성이 상업적인 물건처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히 성인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흔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특히 포르노에 대하여 살펴보면, 포르노가 남성의 성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노에 대한 남성들의 느낌과 경험을 인정해 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평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남성들의 성은 포르노와 가깝기 때문에 여성들이 포르노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는 다를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포르노를 처음 보는 남성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매스껍다, 민망해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즉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가 인정하는 남성다움과 남성집단으로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산물로서 자리잡게 된다. 남성우위의 남성다움이라는 잣대로 당연히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1. 포르노의 지배

포르노는 도덕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도덕적인 문제와 같이 비난받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예속적인 여성의 지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포르노는 남녀간의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과장시키고 왜곡시켜 반영해 주고 있다. 또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질서를 영속시켜주는 요소가 된다. 인과 측면에서도 포르노가 정치적 도덕적 사회부정의에 기여하기 때문에 혐오문학(Hate literature)에 속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는 기타 다른 명예 훼손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제재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증상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에 대한 왜곡된 반영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포르노의 과장된 이미지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적 자극의 계기로서 경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이나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준다고 보고 있다.

2. 성애와 포르노

무엇이 에로틱한 성애이고 무엇이 포르노인가?

포르노는 어떤 사람들의 성적인 희열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불명예, 굴욕적인 묘사를 다루고 있다. 물론 이것이 포르노의 정의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에로틱한 것은 추잡하거나 음란한 것이기보다는 좀더 감각적이고 육욕적인 성적관심의 적절한 반응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화권에 따라 에로틱한 것과 포르노를 구분하는 법적, 도덕적인 경계선이 다르다.

합법적인 성과 위법적인 성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는 상관없이 성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법이 되는 성적 행위가 있다. 여기서 위법이라 함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특히 즐거움이나 기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이다. 포르노에서는 위법적인 성이 실제로 행해진다기 보다는 상상의 장면이 글이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꾸며진 사진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영화나 연극에서의 연기로 표현된다. 대부분의 포르노는 꾸며낸 것이므로 보여지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해는 실제로 없고 따라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관람자가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포르노와 같은 묘사는 강간과 같이 위법적인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포르노적 묘사는 위법적 행동을 승인하고 보는 사람이 그 장면에 갖는 성적 관심을 적절한 반응이라고 승인하는 것이다. 묘사의 주체는 위법적인 성이 아니지만 묘사되는 것의 특성이 관중으로 하여금 특정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포르노적 묘사가 된다. 포르노란 묘사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위법적인 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성적 관심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이며, 그 성 묘사의 위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포르노는 그러한 의도된 효과와 외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

3. 포르노가 미치는 해

불행스럽게도 여성에 관한 그릇된 성격묘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포르노가 갖고 있는 명예 훼손적인 내용들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느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스스로는 여하한 경우에도 강간당함을 즐길 수 없다고 대답하지만, 남성 조사대상자와 더불어 많은 수의 여성 조사대상자는 여성인구의 25% 가량이 강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대를 받음으로써 여성의 성욕은 자연히 왕성해진다는 허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부도덕하고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끼친 해와 유발시킨 고통에서 쾌락을 얻는 것이 더욱 부도덕한 것이다.

포르노는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정복감과 성취감을 주게 되어 남성성을 고무시키게 되므로 남학생들은 상호 동의적인 성 관계보다는 강간을 보고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된다. 남성들에게 강간은 성폭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행위 유형인 것이다.

포르노는 강간이라는 형태의 성폭력이외에 성희롱을 가능하게 한다. 포르노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 포르노를 전시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포르노는 매체의 형식을 띤다는 속성과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포르노를 여성에게 보여주는 남성, 강제로 보게 되었던 여성, 공적인 장소에 포르노 성사진과 영화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인 모두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느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르노에 대한 느낌을 언어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르노의 폭력성을 가시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가시화되지 않는 측면 정서에 대한 폭력을 언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성적 농담이 여성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은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제약을 느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성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는 별것 아닌 여성의 가슴 노출이나 야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여성들은 수치스럽고 무안하고 어쩔 줄 몰라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게 몸에 대한 인식이 달리 적용되어왔기 때문이다.

4. 포르노 해체하기(나타내기)

포르노가 성행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해주는 증상으로서, 포르노는 에로틱하게 되는 지배의 극단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환상의 세계를 반영해주는 것이 포르노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르노가 결국은 도덕적으로 불건전한 쾌락

을 탐닉하면서 포르노 소비자의 억압된 성적욕망을 무해하게 배출시켜 주며,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자기 상해 이외에는 실제적인 다른 해가 없다고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포르노를 보는 남성의 시선은 포르노 안의 여성에서 포르노 밖의 여성으로 이어진다. 성적으로 대상화 될 가능성과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이러한 시선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신경쓰며 경계하면서 살고 있다. 포르노는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남성의 관음적 시선을 작동시키게 만든다. 따라서 포르노는 공적인 장소와 환경에서 여성을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성적역할 이외의 다른 재능과 업무와 잠재력을 가려지고 평가 절하되기 쉽다. 이것은 여성들의 공식적인 활동과 공간의 사용을 제약하는 비가시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무난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않된다. 또한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을 가시화 언어화시켜야 하는 주체는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않된다.

이제 포르노를 해체하는 것 즉 생각하고 말해본다면 포르노를 해체하는 것은 건전한 성과 그렇지 않은 성 주체적인 성과 그렇지 않은 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다.

첫째, 포르노는 실천이다. 포르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생각하고 있는가이다.

둘째, 포르노는 단지 청소년시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한 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형성이 불가능한 청소년기에 포르노가 가장 충격적이고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양식은 청소년에 한번 형성되고 나면 평생 지속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성인기의 포르노 체험은 그 사람의 성을 모양짓고 상상하고 계획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르노는 대안적인 섹스형식, 상호성과 평등성이 에로틱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포르노에 반대하는 것은 섹스가 학습되고 경험되는 방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포르노는 인간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끼친다. 포르노의 피해를 물리적 폭력에만 제한하지 말자.

넷째, 포르노는 수용이나 무시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다.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포르노는 성의 개방성의 척도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적어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포르노 반대론에 대한 지나친 피해 의식은 포르노를 비판하고 대안적 담론을 펼쳐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판단의 사각지대에 빠뜨린다.

다섯째, 포르노를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성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니다. 포르노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 쾌락을 만들어 가려는데 대한 저항이지 성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